

멀티플렉스 상영관 운영 중단에 따른 관람 행태 영향 : 춘천 CGV 휴관을 중심으로

서정수

목 차

- I. 서론
- II. 문헌 연구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IV. 분석 결과
- V. 결론
- ABSTRACT

초 록

현재 국내 영화 산업의 배급 구조는 멀티플렉스 체인으로 시장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 영세 상영관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멀티플렉스 체인은 수직결합 구조의 독점화로 시장 형성을 하고 있다. 춘천에서는 1개월간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상영 중단은 수직결합 구조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 문제 현상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발생시켰다. 특히 문화적 욕구에 대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불법 콘텐츠로의 접근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수직결합 구조의 멀티플렉스 극장이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과정과 함께 병행되었던 중소 영세 상영관의 몰락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수직결합 구조의 상영관이 수평결합 구조의 상영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과정이 완성된 춘천 지역에서, 2008년 9월 27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춘천CGV가 상영 중단되는 현상을 통해 발생되었던 영향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수직결합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영화 산업의 주요 소비자인 20대 계층은, 멀티플렉스 휴관으로 인하여 개봉 영화에 대해 접근성이 약화되면, 불법 콘텐츠로의 접근 충동을 느끼는 영향을 받고 있다. 개봉 시기에 관람을 놓친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관 방문보다는 불법 콘텐츠나 기록매체로 출시되는 영화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영화가 개봉되는 시기에 관람을 해야 하는 시기 적절성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개봉 영화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식, 기록매체를 활용한 상시 접근성, 개봉에 대한 시기 적절성이 관람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제어 : 수직결합, 멀티플렉스, 상영, 춘천 CGV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중 매우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영화 산업 환경은 대자본을 기반으로 하나의 체인을 형성하여 기존의 소자본 규모의 영세한 영화 산업의 상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영화 산업의 환경의 변화는 중소 영세 상영관의 휴폐업을 만들어 내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멀티플렉스 상영관만 존재하게 되었다. 최근 영화 산업의 추세를 보자면 대자본의 기업들이 영화의 제작비 투여부터 시작하여 영화의 제작부터 소속 배급사를 통하여 자체 내에 존재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배급하여 상영하는 체인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유통과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 대한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춘천 지역의 경우 2008년 9월 27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춘천 CGV가 휴관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많은 관람객이 개봉작에 대한 관람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문화적 욕구가 커진 기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휴관하였을 때 나타난 영향을 관람객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문헌 연구

1. 멀티플렉스의 영화 흥행 영향력

1) 멀티플렉스의 발생

멀티플렉스라는 개념은 한 공간 안에 여러 상영관을 가진 극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멀티플렉스는 AMC(American Multi-Cinema)의 Stanley Durwood가 처음 시작한 개념이다. 1963년에 트윈극장을 오픈한 그는 66년 4개 극장으로 구성된 단지를 열었고 69년에는 6개 극장단지를 개관했다. 복합극장 혹은 단지 개념의 성공을 토대로 AMC는 1980년대에 미국 5대 흥행체인의 대열에 포함될 수 있었다.¹⁾

멀티플렉스는 위에서 언급된 시작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도입 초기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중반까지 멀티플렉스의 성장세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1970년대 중반까지 전체 상영관의 10% 정도가 복합극장단지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이때의 복합극장단지의 80%는 2개의 스크린을 가진 트윈극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어 1980년대 말에는 대부분의 상영관이 멀티플렉스로 바뀌었다. 1970년대에는 대형 상영관이 내부 공사를 통해 스크린을 늘리는 방식이 유행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쇼핑몰이 세워지는 곳마다에 새로운 멀티플렉스가 들어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87년에 이르렀을 때 미국에서는 1971년과 비교하여 스크린 수가 70% 이상 증가한 상태였다. 물론 이것은 소극장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기에 스크린의 증가 속도가 객석 수의 증가와 산술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²⁾

1) Jowett, G. & James Linton, 김훈순역, 1994, p.68.

2) 양영철, 2004, pp.333-356.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영화 산업의 침체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에서는 TV의 성장, 영화산업계의 임금 증대, 대형 영화사의 침체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소의 변화에 의해 영화의 시장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TV와 유사한 방식의 다양한 콘텐츠의 높은 빈도 노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영화 상영이 높은 빈도와 다양화 형태에 집중하게 된 것은, 소비자의 욕구와 공급자의 홍보비 등 부대비용의 절감 문제와 함께 문화 콘텐츠적 특성인 무한복제와 무한 상영 지역 확장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1968년 11월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가 출범시킨 CARA(Classification and Rating Association)의 등급분류시스템도 멀티플렉스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TV와의 경쟁에서 전통적인 가족영화가 힘을 잃자 영화산업은 개별 연령층을 별도로 겨냥하는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극장들은 가족들이 함께 극장을 찾더라도 서로 다른 영화의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상영관을 동시에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³⁾ 1990년대 초반에 이르자 6개에서 15개 정도의 스크린을 보유한 멀티플렉스들이 식당, 게임, 쇼핑, 레저시설 등과 결합하는 추세가 확고해졌으며 극장내부도 시설 및 인테리어에 대한 집중 투자로 쾌적한 환경과 관람 공간으로 변모해갔다.⁴⁾

2) 국내 멀티플렉스의 흥행 영향력

국내에 멀티플렉스가 도입되는 계기는 상영편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국내 영화계의 배급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던 외국영화 직배와 복사 프린트 수의 제한 폐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3년에는 한국영화 제작 편수가 91편이고, 외국영화 수입 편수가 23편이었는데 비해, 1989년에는 한국영화 제작 편수가 110 편이고, 외국영화 수입 편수가 307편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⁵⁾ 이러한 외국 영화 수입 편수의 급격한 증가는 관람객의 증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되어 스크린 수를 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즉,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도입이 시작되게 되었고,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도입은 관객 수의 증가를 이끌어내게 된다.

이런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관객 수 증가 효과는 결국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증가를 만들어내게 된다. 1990년 서울극장이 3개의 스크린을 갖춘 상영관으로의 변모를 시작으로, 1998년 강변CGV가 처음으로 미국식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도입하게 된다. 이렇게 CGV가 국내에 처음으로 미국식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도입한 이후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은 CJ CGV, 메가박스 시네플러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시네마와 소형 계열의 멀티플렉스 체인을 형성해 발전해 나갔다.⁶⁾

멀티플렉스의 도입은 와이드 릴리즈가 확대되는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와이드 릴리즈는 개봉 스크린 수는 증가하고 상영 기간은 짧아지는 형태이다. 예로 90년대의 한국영화 흥행 최고 성적의 장군의 아들은 단성사에서 175일 개봉에 67만의 관객을 동원하였으나, 2000년 한국영화 흥행 최고 성적의

3) CARA는 등급 분류제를 실시하였는데, 총 5단계의 연령별 등급 제한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제한 등급의 영화 상영을 통해 가족 모두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였다.

4) 양영철, 2004, 위의 논문 발췌 재정리.

5) 영화진흥위원회, Kofic 통계자료 참조 발췌

6) 영화진흥위원회, Kofic 국내극장 현황통계발췌 재정리

<공동경비구역 JSA>는 55개 스크린에서 48일간 개봉하여 200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또한, 스크린 수가 적을 때에는 흥행 위주의 상영으로 국내 영화의 상영이 제한되었으나 스크린 수의 확대로 국내 영화의 상영이 관객 점유만 된다면 지속적 상영이 가능하였다. 이는 멀티플렉스 등장 이후 매년 흥행 상위 10위안에 한국 영화가 늘어나고 있음으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⁷⁾.

2. 춘천 지역의 멀티플렉스의 영향력

춘천 지역의 상영관의 경우는 멀티플렉스 체인이 진입하기 전에는 중소 상영관이 최대 5개까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멀티플렉스 상영관 2개만 존재할 뿐 중소 상영관은 전부 휴폐관되는 현실을 맞이하였다. 춘천 지역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다수의 스크린 수를 통해 다수의 관객을 흡수하고 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 9월 27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춘천 CGV가 휴관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이 휴관은 CGV의 문제가 아니라 CGV가 입주하여 있는 건물의 전기료 미납으로 인한 단전 사태가 발생하여 상영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춘천 지역은 CGV에 대한 관람의 접근성을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해 춘천 지역의 관람객의 영화 선택권 또한 많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의 멀티플렉스 현황을 고찰하여 강원도 지역의 영화 상영구조의 취약성을 보고, 춘천 지역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현황을 고찰하여 춘천 CGV가 춘천 지역 내 영화 상영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강원도 지역 멀티플렉스 상영관

<그림 1>에서는 전국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스크린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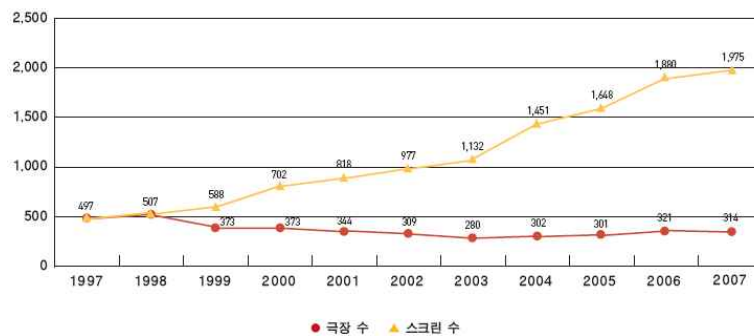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극장 및 스크린 수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자료 발췌⁸⁾

7) <http://poohsi.blog.me/90011859895> 자료 참조 재정리

8) <http://www.kofic.or.kr/cms/58.do> 이후 각주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자료 동일함

국내에 미국식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도입되기 전인 1998년까지는 극장 수와 스크린 수가 거의 동일하다가 CGV가 강변CGV를 개관한 이후 1999년부터 극장 수는 감소하고, 스크린 수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7년의 경우 1개 상영관에 스크린 수가 평균 4개 이상의 수치를 나타낼 정도로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성장하게 되고, 극장수의 감소는 중소상영관의 휴폐관의 경우로 진행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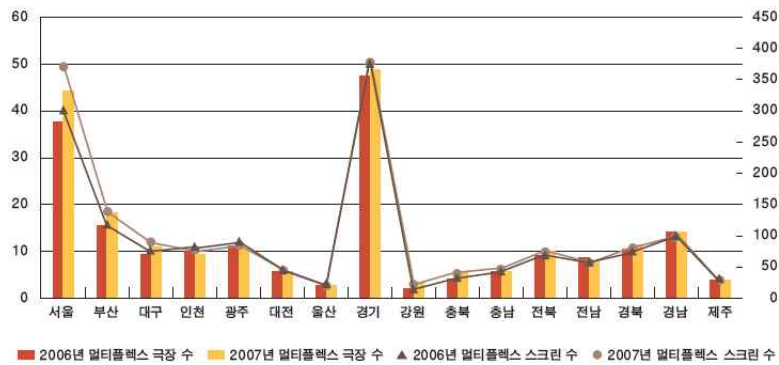


그림 2. 2007년 멀티플렉스 극장 수 및 스크린 수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자료 발췌

<그림 2>에서 보면 강원지역의 경우 멀티플렉스 상영관 수 및 스크린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멀티플렉스 휴관이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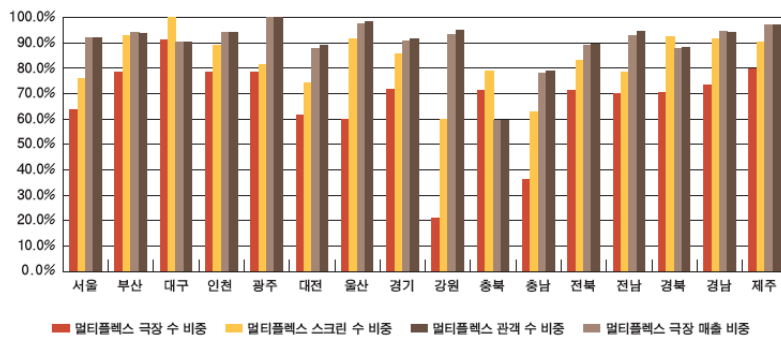


그림 3. 2007년 지역별 멀티플렉스 비중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자료 발췌

<그림 3>은 지역별 멀티플렉스의 지역 상영 시장에서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 지역을 살펴 보면 중소 상영관의 수에 비해 멀티플렉스의 수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멀티플렉스 관객 비중과 매출 비중은 전국적 상위권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적은 수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거의 모든 관객이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중소 상영관은 상대적으로 관객이 거의 없는 운영상의 절대적 불리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중소 상영관

이 휴관 또는 폐관될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1>을 살펴보면 국내 배급사중 CJ엔터테인먼트가 독보적인 수준의 배급망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J엔터테인먼트가 체인을 통해 상영관에 배급한 영화 편수는 다른 배급사에 비해서도 다수를 차지하지만 관객 점유율과 매출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매우 규모가 큰 배급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CJ엔터테인먼트의 배급망을 통해 배급되는 영화가 관객 대상의 흥행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CJ엔터테인먼트는 UPI코리아, 소니픽처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의 직배 구조에 의한 블록버스터 영화와 맞설 정도 규모의 영화를 배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J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영화 배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기타 배급사의 226편이 전체의 10%선을 점유한 것에 비하면 CJ엔터테인먼트가 36편을 배급하고서도 32%정도의 점유를 한 결과는 CJ엔터테인먼트의 비중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국내 영화 배급 유통에는 CJ 계열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CGV의 휴관은 타 멀티플렉스 휴관보다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급사	2008년 1~11월		
	편수	전국 관객 점유율	전국 매출 점유율
CJ엔터테인먼트	36	32.2%	32.3%
UPI코리아	13	11.0%	11.0%
쇼박스㈜미디어플렉스	17	10.0%	10.1%
한국소니픽처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	14	7.4%	7.3%
워너브러더스코리아	10	6.1%	6.1%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27	5.1%	5.0%
스튜디오2.0	13	5.1%	5.2%
싸이더스FNH	12	4.8%	4.8%
SK텔레콤	6	4.1%	4.0%
이십세기폭스코리아	14	3.9%	3.9%
기 타	226	10.5%	10.3%
계	388	100.0%	100.0%

표 1. 2008년 1~11월 배급사별 점유율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자료 발췌

2) 춘천 지역 멀티플렉스 상영관

<표 2>를 보면 2007년도의 강원지역 상영관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개관한 지역의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속초, 원주, 춘천 지역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개관을 하였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개관한 지역의 중소 상영관은 모두 휴관이나 폐관을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시설 면에서 낙후성도 있겠지만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개관으로 인해 중소 상영관의 운영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춘천지역은 CGV와 프리머스가 전체 상영 시장을 장악하였다. CGV는 12개 스크린을 확보하고, 프리머스는 6개의 스크린을 확보하여 CGV가 더 큰 시장성을 확보한 형태로 춘천지역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운영되고 있다.

	광역단체	기초단체	영화관명	스크린수	좌석수	비고
1	강원도	강릉시	롯데리아극장	2	478	
2	강원도	강릉시	신영극장	1	225	
3	강원도	강릉시	중앙극장	2	384	
4	강원도	동해시	삼성소극장	1	182	
5	강원도	동해시	피카디리	1	166	
6	강원도	삼척시	썬프라자극장	1	135	
7	강원도	삼척시	아카데미극장	1	157	
8	강원도	속초시	프리머스시네마 속초	5	714	07.02.10개관
9	강원도	원주시	롯데시네마 남원주	7	1,196	05.10.27 개관
10	강원도	원주시	씨너스 원주	8	902	07.10.08개관
11	강원도	원주시	문화	1	795	06.03.21 휴관
12	강원도	원주시	시공관	1	798	06.04 휴관
13	강원도	원주시	아카데미	1	780	06.04.13 휴관
14	강원도	원주시	원주	1	471	06.04.13 휴관
15	강원도	춘천시	아카데미극장	1	156	06년 말 휴관
16	강원도	춘천시	프리머스시네마 춘천	6	698	05.10.13 개관
17	강원도	춘천시	피카디리극장	1	401	휴관
18	강원도	춘천시	CGV춘천	12	2,159	08.2.28 개관
19	강원도	태백시	메르디앙씨네마	1	140	06.11.20 개관
20	강원도	홍천군	비바 아트홀	1	87	

표 2. 2008년도 강원지역 상영관 현황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자료 발췌

3) 춘천 CGV 휴관시 춘천지역 상영 영화 현황

<표 3, 4>를 보면 춘천 지역에서는, 춘천 CGV가 휴관한 시기에 국내에 개봉되었던 국내 영화 14편 중 2편만이 프리머스를 통해 개봉되었고, 국내에 개봉되었던 국외 영화 25편 중 2편만이 프리머스를 통해 개봉되었다. 정리하자면 춘천 CGV가 휴관한 시기에 춘천 지역에는 총 39편의 개봉작 중 4편만 개봉되었다. 이 결과로 보면, 당시 전국에서 개봉된 영화의 10%정도만이 춘천 지역에서 개봉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춘천 지역에서 개봉되지 못한 35편의 개봉작에 대해 춘천 시민은 상영관에서 관람할 수 없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다. 6개의 스크린이 있는 프리머스는 당시 기존에 개봉된 흥행작 위주의 상영을 계속 하였고, 춘천 CGV 휴관 기간 중 상영한 총 13편의 영화에서 신규 개봉은 4편만 해당되었다. 개봉작조차도 흥행성을 기준으로 선별된 작품만을 개봉한 경우로, 관람객은 관람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프리머스 개봉작 중 이글아이와 모던보이는 CJ계열의 배급사의 개봉작인데 프리머스에서 상영된 것은 춘천 CGV 휴관에 따른 조치로 보였다.

춘천 CGV 휴관시 국내영화 개봉작	춘천 프리머스 개봉 유무
고고 70	○
모던보이	○
비몽	X
미쓰 홍당무	X
사과	X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어주나요?	X
여름, 속삭임	X
가벼운 잠	X
그 남자의 책 198쪽	X
슬리핑 뷰티	X
아내가 결혼했다	X
하늘을 걷는 소년	X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	X
소년감독	X

표 3. 춘천 CGV 휴관시 국내영화 개봉작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Kobis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발췌

춘천 CGV 휴관시 외국영화 개봉작	춘천 프리머스 개봉 유무
더 클럽	○
미스 페티그루의 어느 특별한 하루	X
바빌론 A.D.	X
남 주기 아까운 그녀	X
내 친구의 사생활	X
이글 아이	○
공작부인: 세기의 스캔들	X
구구는 고양이이다	X
데스 레이스	X
언더 더 썬	X
하우 투 루즈 프렌즈	X
나는, 인어공주	X
넷지오 주니어 무비	X
도쿄!	X
바디 오브 라이즈	X
피아노, 솔로	X
화피	X
멜로디의 미소	X
굿 바이:Good & Bye	X
너를 잊지 않을 거야	X
마이 썬시 걸	X
뱅크 잭	X
컨트롤	X
플라이 미 투 더 문	X
피아노의 숲	X

표 4. 춘천 CGV 휴관시 외국영화 개봉작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Kobis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발췌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 문제

국내 영화 산업의 유통 형태가 단독 상영관에서 멀티플렉스 상영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춘천 지역도 영화 산업 유통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다. 영화의 유통에 대해 취약한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던 춘천 지역의 경우 멀티플렉스 극장의 진입 후 소규모 영세 극장의 휴폐업이 나타났으며, 멀티플렉스 상영관만이 영화를 상영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춘천 CGV가 휴관을 하게 되었고,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상영을 중단했을 때 지역민이 받게 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지역의 멀티플렉스 극장이 상영 중단을 하였을 때 관람객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춘천 지역 내에 존재하던 기존의 영세 상영관들이 휴·폐관하여 자체 체인으로 운영되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시장 장악을 한 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역 관람객의 관람 행태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기존 연구에 대해 유사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별도로 연구된 바 없었다. 따라서 사례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멀티플렉스의 개념과 국내 멀티플렉스의 발생에 대해 살펴보고, 춘천 지역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춘천 CGV의 상영 중단 시 지역 내에서 개봉된 영화를 알아보고, 영화 관람 정도와 저작권 침해율이 가장 높은⁹⁾ 20대를 기준으로 2008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춘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400명에게 관람 행태의 영향에 대해 면접설문을 실시하고 비중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춘천 지역은 CGV와 프리머스 두 개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전체 영화 상영 시장을 점유해버린 사례를 가진 지역이다. 2008년 9월 27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CGV가 휴관하여, 1개월여 기간 동안 춘천 지역민은 영화에 대한 문화적 접근성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1개월여 기간의 춘천 CGV의 휴관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영화 관람 정도를 저작권 침해율이 가장 높은¹⁰⁾

9)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1240191> 발췌

10)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1240191> 발췌

20대를 기준으로 2008년 12월 1일부터 14일 까지 춘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400명에게 면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400명중 영화관에 가는 인원이 288명, 영화관에 안가는 인원이 112명으로 조사되어, 영화관을 가는 288명을 대상으로 결과 비중 분석을 하였으며, 남자가 180명 여자가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95%, 표본오차 2.5%이하, 오차한계 4.9%이 하이다.

<표 5>에서 <표 8>까지는 관람객의 일반적인 관람 행태를 조사하였다. 1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관람 횟수는 1-2회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선호 상영관은 CGV, 프리머스 순으로 나타났다. CGV의 CJ 체인에 대한 인지는 58.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CJ 계열 체인 내의 영화 유통은 55.6%가 모르고 있었다.

	빈도	퍼센트
1번	140	48.6
2번	120	41.7
3번 이상	28	9.7
합계	288	100.0

표 5. 1개월 동안 평균 상영관 관람 횟수

	빈도	퍼센트
CGV	128	44.4
프리머스	120	41.7
기타	40	13.9
합계	288	100.0

표 6. 춘천 지역 내 선호 상영관

	빈도	퍼센트
알고 있다	168	58.3
알지 못함	120	41.7
합계	288	100.0

표 7. CGV의 CJ 계열사 소속 인지

	빈도	퍼센트
알고 있다	128	44.4
알지 못함	160	55.6
합계	288	100.0

표 8. CJ엔터테인먼트와 CGV 체인의 배급 인지

춘천 CGV의 휴관에 대한 인지도는 68.1%가 인지를 하고 있었으며, 춘천 CGV 휴관시 개봉작 관람 장소는 프리머스, 불법다운로드, 타지역 극장 순으로 나타났다. CGV 휴관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영화가 있었는가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글아이와 모던보이에 집중된 관람의 영향으로 보인다. 휴관으로 인해 못 본 영화의 향후관람은 불법다운로드, 비디오나 DVD 출시후 관람 순으로 나타났다. 휴관으로 인한 관람의 문화적 소외가 있었다는 응답비율이 없었다는 비율보다 조금 높았다.

	빈도	퍼센트
알고 있다	196	68.1
알지 못함	92	31.9
합계	288	100.0

표 9. 춘천 CGV의 휴관 사실의 인지

	빈도	퍼센트
프리머스	128	44.4
인터넷상영관	4	1.4
불법다운로드	80	27.8
타 지역 극장	52	18.1
기타 ¹¹⁾	24	8.3
합계	288	100.0

표 10. 춘천 CGV 휴관시 개봉 영화 관람 장소

11) 기타에는 IPTV, DMB,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지상파 방송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 항목과 이 부분이 국내 영화 시청 환경이다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16	5.6
그렇다	80	27.8
보통이다	84	29.2
아니다	84	29.2
매우 아니다	24	8.3
합계	288	100.0

표 11. 춘천 CGV 휴관시 체인 배급으로
관람이 불가능했던 영화의 존재유무

	빈도	퍼센트
비디오&DVD	88	30.6
인터넷상영관	40	13.9
불법다운로드	92	31.9
타 지역 극장	32	11.1
기타 ¹²⁾	36	12.5
합계	288	100.0

표 12. 춘천 CGV 휴관으로 인한 미관람
영화의 향후 관람 방법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24	8.3
그렇다	76	26.4
보통이다	100	34.7
아니다	56	19.4
매우 아니다	32	11.1
합계	288	100.0

표 13. 춘천 CGV 휴관으로 인한 문화적 소외 유무

V. 결론

본 연구는 춘천 CGV의 휴관에 의해 발생한 관람객의 관람 행태에 나타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영화 관람 욕구가 높고 불법적 접근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 춘천의 20대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영화 상영관을 1-2회 방문하며, 지역 내에서 선호하는 상영관은 CGV와 프리머스 순이었다.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CGV나 프리머스를 방문하게 되고 CGV를 조금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람료는 비싸지만 스크린 수가 두 배인 CGV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층은 CGV의 CJ계열사 인지는 많이 하고 있는데 계열사 내 체인 배급 형태는 많이 모르는 상영관 선호 위주의 선호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은 춘천 지역이 경험한 CGV 휴관 기간 동안 조사 대상층이 받은 관람 행태의 영향이다. 조사대상층의 다수가 춘천 CGV의 휴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고, 조사대상층은 CGV 휴관시 개봉영화 관람 장소로 4편을 개봉한 프리머스에 대해 평상시보다 약간 증가한 선호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불법다운로드와 타 지역 극장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층의 27.8%라는 높은 비율의 불법다운로드는 콘텐츠 불법 접근 유혹에 심각한 취약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CGV 체인 내 영화 공급이라는 형태는 CJ 계열 배급사가 해당 시기에 흥행 대작인 2편에 대해 프리머스에 공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균 한 달에 1-2회 관람하는 조사대상층의 특성에 따라 관람 만족도에는 큰

12) 기타에는 IPTV, DMB,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지상파 방송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 항목과 이 부분이 국내 영화 시청 환경이다

영향이 없었다. 조사대상층은 CGV 휴관으로 인해 못 본 개봉작의 향후 관람 방법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가장 선호하였고, 비디오나 DVD를 다음으로 선택하였다. 즉, 개봉 시기에 관람을 놓친 조사대상층은 불법 접근 방식과 개봉이 끝난 뒤 매체기록물로 관람하는 경향을 보여, 개봉시기에 상영관에서 관람하는 형태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층의 문화적 소외 경험은 소외가 있었다는 비율이 없었다는 비율보다 약간 높아 개봉작의 다양성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영화 산업의 주요 소비자인 20대 계층은, 멀티플렉스 휴관으로 인하여 개봉 영화에 대해 접근성이 악화되면, 불법 콘텐츠로의 접근 충동을 느끼는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봉 시기에 관람을 놓친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관 방문보다는 불법 콘텐츠나 기록매체로 출시되는 영화를 선호하는 시기 적절성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참고문헌

- 강병준, 이수운, “콘텐츠 불법다운로드 주범은 ‘20대 남학생’”, 『전자신문』, 2008년 1월 25일,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1240191>
- 무비스트, “멀티플렉스의 개념과 등장 배경”, <http://poohsi.blog.me/90011859895>
- 양영철, 「국내 멀티플렉스의 현황과 시설변화 추이」, 『영화연구』, 통권 24호(2004), pp.333-356.
- 영화진흥위원회, “2007년도 전국 극장 명부”, <http://www.kofic.or.kr/cms/58.do>
- 영화진흥위원회, “2007년도 전국 멀티플렉스 명부”, <http://www.kofic.or.kr/cms/58.do>
- 영화진흥위원회, “2008년도 한국영화연감 통계”, <http://www.kofic.or.kr/cms/58.do>
- 영화진흥위원회, “2008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 <http://www.kofic.or.kr/cms/58.do>
- 영화진흥위원회, “연도별 한국/외국영화 제작, 수입 및 개봉편수”, <http://www.kofic.or.kr/cms/59.do>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Kobis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http://www.kobis.or.kr>
- Caves, Richard E., *Creative industries: Contracts between art and commer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Florida, Richard,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Taylor & Francis, 2004.
- Florida, Richard,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 Perseus Books Group, 2007.
- Hesmondhalgh, David, *The cultural industries*, Sage Publications, 2007.
- Jowett, Garth, & James Linton, *Movies as mass communication*, 김훈순 역 『영화 커뮤니케이션』, 나남.

부록 설문지

본 설문은 춘천 CGV의 휴관에 따른 본인의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입니다.

춘천 CGV의 휴관에서 경험한 귀하의 경험대로 가장 적합한 항목 하나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1. 귀하는 평소 영화관에 가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영화를 보십니까(평균적으로)?

1) 0번 2) 1번 3) 2번 4) 3번 5) 4번 이상

2. 귀하가 춘천에서 자주 가는 영화관은 어디입니까?

1) 춘천 CGV 2) 춘천 프리미어스 3) 기타

3. 춘천 CGV가 CJ 계열사로 소속되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알지 못한다.

4. CJ 계열 영화 배급은 주로 CGV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알지 못한다.

5. 귀하는 2008년 9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춘천 CGV가 영업을 중단하였던 사실을 아십니까?

1) 알고 있다 2) 알지 못한다.

6. 춘천 CGV가 휴관하였을 때 개봉 영화를 보았다면 어떻게 보았습니까?

1) 프리미어스 2) 인터넷 상영관 3) 불법 다운로드 4) 타 지역 극장 5) 기타

7. 춘천 CGV의 영화 상영 중단으로 볼 수 없었던 영화가 있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매우 아니다

8. 춘천 CGV가 영업을 중단하여 못 본 영화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았거나 볼 예정입니까?

1) 비디오&DVD 2) 타 지역 상영관 방문 3) 인터넷 상영관 4) 불법 다운로드 5) 기타

9. 춘천 CGV가 휴관하여 보고 싶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기 힘들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매우 아니다

감사합니다.

통계 자료 수집을 위해 다음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나이 : 성별 : 거주 생활 지역 :

ABSTRACT

The Effect of the Watching Behavior in Multiplex Screening Interruption : In Centering of Chuncheon CGV Closing

Jeong-Soo Seo

The current distribution structure in Korea film industry is in the multiplex chain. As a result, most small or medium-sized theater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market, and all the multiplex chain have gradually been formed into the vertical integration structure. The strike by multiplex theaters in Chuncheon who did not screen for one month led to the problem of the vertical integration, which resulted in many effects. Particularly, it caused considerable effect on the cultural desire and instigated movie-goers to turn to illegal content.

This study surveys the process in which Korean multiplex theaters in vertical integration structure took over the Korean film market, and consequently, small theaters collapsed, and the theaters in vertical integration structure kick out small theaters in horizontal integration structure, and conducts a survey on the effect of the one-month strike by Chuncheon CGV from September 27 to October 30, 2008 in Chuncheon where said processes had completed so 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and impact of the problem of the vertical integration, monopoly structure.

When major consumers of the film industry, i.e., people in their 20s, see their access to newly released films limited due to closing of multiplex theaters, they feel the impulse to access illegal contents. If they miss viewing the newly released films, they prefer to view illegal contents or films on recording media rather than visiting theaters showing those films. They are also influenced by timing of film release. Specifically, methods of illegal access to newly released films, permanent accessibility to them via recording media, and timing of film release influence their viewing patterns.

Keyword : vertical integration, multiplex, screening, Chuncheon CGV

서정수
한림성심대학 영상콘텐츠과 교수
(200-711)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0
033-240-9212 / integer@hsc.ac.kr

논문투고일: 2010.08.27

심사종료일: 2010.12.21

게재확정일: 2010.12.23